

바이오·백신·드론·우주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나선다



미래산업 메카
떠오르는 전남

<1>미래 산업 어떤 것이 있나

전남도가 10년 이상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산업들이 민선 7기 들어 연구개발기관 유치, 기업 이전 등을 통해 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반석에 오르고 있다. 첨단바이오·백신산업, 드론·플라잉카 등 차세대 미래비행체산업, 고흡 나로우주센터가 핵심이 된 우주산업,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주축이 될 이차전지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전남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 주력산업의 고도화 과정 등을 밀착취재해 보도한다.

이미 철강·화학이라는 주력산업을 가진 전남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을 키우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력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신규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첨단 바이오·백신, 우주, 이차전지, 차세대 미래비행체, 첨단세라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과 관련 연구개발기관, 테스트베드, 핵심기업 등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본격적인 도약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천혜의 자원·유리한 지리적 위치

연구 개발시설도 속속 갖춰져

핵심기업 이전 가시적 성과 나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이전 또는 신규 창업, 세계적인 히트 상품 개발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지만, 불모지와 같았던 전남에 미래산업의 새싹이 자라나 뿌리를 내렸다는 것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0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첨단바이오산업의 마지막 '방점'을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점복단지)가 찍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 2010년 화순의 국가 지정 백신산업특구에 2019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2020년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등 면역치료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시설들을 잇따라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에서 임상, 시제품 생산, 대량 생산, 인증 등 면역치료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완벽하게 됐다. 이미 바이오메디컬 인프라가 갖춰져 1조5132억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면역치료의 메카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드론을 포함한 차세대 미래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산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40년 모건스탠리가 1709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차세대 미래비행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 2019년 11월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체계(K-UAM)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심 운용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입지해 있어 전남은 우주발사체, 우주테마파크 등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산업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우주 관련 R&D기관,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우주개발 벨트' 구상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계획에 따라 전남도 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남은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핵심기업과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독보적인 1등 기술력 확보,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스모스 '한들한들' 27일 오전 광주 서구 벽진동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인근 천변에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공공개발 사업 '속도'

보상비 369억 활용방안 곧 발표
시티타워 등 랜드마크 건립의견도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공개발 사업이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호텔 관련 보상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내에서 공공개발 방식을 놓고 자연 생태계 그대로 복원하자는 제안부터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 광주 도심에 조망할 수 있는 '시티타워'를 비롯한 랜드마크 시설 건립 등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양파크호텔측과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관련 토지와 건물, 호텔 시설 등의 보상액을 최종 369억원으로 합의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광주시와 호텔 측이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호텔 측은 각각 전문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했는데, 평균액이 419억원으로 산출되

면서 수차례 조율 절차를 거쳤다. 광주시는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298억원보다 감정평가액이 100억원 이상 높게 나오자 사업 공익성 등을 이유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 호텔측도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최근 호텔 측과 계약동의서를 작성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투자심사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이후 토지와 건물 등 매입 비용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신양파크 부지 공유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는 다음 달 중 이번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정학 협의회 내부에서 공공개발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본회의 8차례, 소위원회 13차례 등 20차례 넘게 회의가 진행됐는데, 위원들간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고 있다.

일단 광주시는 기존 호텔 시설을 재활용한 유스호스텔이나 아시아 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지역 대

표 랜드마크 건립 등을, 동구청은 유스호스텔과 개념이 비슷한 문화 예술 체험형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어린이 전용 공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광주를 상징하고 도심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시티타워' 등을 건립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생태계 그대로 원상복구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목소리부터, 민간 주도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방식의 보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선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해 영구 보전·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방식은 민간 주도의 관리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자칫 특정 민간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관·정·학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추진 계획 확정해 급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원수가 된 이웃...여수, 살인 부른 증간소음 ▶6면
굿모닝 예향 - 카페, 문화가 되다 ▶18-19면
최경주 PGA 챔피언스 투어 첫 우승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영광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청정 자연과 수 천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남의 새천년을 이룰 지속가능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해양쓰레기 제로화

ZE RO

매일 셋째주 금요일은 연안정화의 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합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강·하천·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오고,
양식어장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합니다.